



WWF

SUSTAINABLE
BANKING

2020



2020

뱅킹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 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감사의 글

공동저자 : Chen Ted Kin, Anders Nordheim

편집자 : Dr. Keith Lee

WWF는 도움을 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chmad Fauzan Alfansuri, Sylvain Augoyard, Diosie Claine Avelino, Anna Batenkova, Chai Min Wei, Deng Yimin, Joseph Eijansantos, Dr. Adrian Fenton, Marie Gauthier, Rizkiasari Joedawinata, Kwon Soohyun, Katherine Lim, Adam Ng, Nguyen Thuy Trang, Tayut Sirivorakanvanit, Pomradee Tangkaseranee, Huong Nguyen Thanh, Dr. Helena Wright, Xiao Bo Wei, Yamamoto Asami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Asia Sustainable Finance Initiative)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다음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이 간행물에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및 디자인 :

Barney Jeffries and Catherine Perry (swim2birds.co.uk)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스위스 글랑 소재)

이 간행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때는 간행물 제목을 언급하고 상기 발행인이 저작권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받은 종이와 방식으로 인쇄되었습니다.

국문 발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 : 홍윤희

발행처 :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 2021년 2월

번역감수 : 권수현, 안혜진, 정서영, 이경희, 권연주

국문판 디자인 작업: 모아베이

표지 사진 © Naypong / WWF International

WWF(세계자연기금)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3,0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 웹사이트(pand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WWF는 금융 흐름(financial flow)의 방향을 바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 부문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WWF가 보유한 자연보전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 및 기회 요소가 주류 금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WW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지속가능금융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을 포함한 선도적인 이니셔티브 및 녹색채권(green bond) 관련 국제표준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WWF는 금융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대출 및 투자 기준의 강화,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위해 전 세계의 대형 자산보유기관(asset owner), 자산운용사(asset manager), 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지난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 WWF 2020

목차

서문	4
머리말	6
평가 대상 은행	12
결과 요약	14
주요 결과	15
부문 및 이슈	17
권고안	19
국가별 결과	22
일본	22
한국	23
인도네시아	24
말레이시아	25
필리핀	26
싱가포르	27
태국	28
베트남	29
SUSBA 프레임워크 세부지표	30
참고 문헌	35
약어 설명	36

서문

WWF 2020 뱅킹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 (SUSBA, 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기상이변의 기록이 매년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심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국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고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무역 차원의 변화도 일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5)'도 지난 12월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2021년을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으로 삼아, 2030년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내에 상향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금융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함께 금융의 흐름을 바꾸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계획하고 이행하도록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영향력은, 자사의 탄소배출량감축 그 이상으로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파리협정 1.5도 목표 경로에 맞추는 것 즉 자금의 흐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제 활동으로 유도하는 데 바로 금융의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 리스크 관리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탈탄소화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전반을 지속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은 생존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금융기관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홍윤희
WWF-KOREA / 사무총장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기후 대응에 금융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금융을 변화의 핵심동인으로 삼고, 금융 부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은행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통합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뱅킹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SUSBA, 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 기업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국내 은행의 지속가능금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SUSBA를 통해 기후뿐 아니라 자연보전 전반에 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기후 완화·적응에 반드시 필요한 생물다양성과 자연보전 강화에 관한 준비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 완화, 기업의 기후 환경 관련 정보 공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점에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강화를 위한 SUSBA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의 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이 때, 지속가능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국내 금융기관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머리말

전 세계는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인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경제위기 확산이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경험을 기회로 삼아 교훈을 얻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환경·사회적(E&S) 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기후변화와 자연 손실(nature loss)의 파괴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으로 간주하고 있다. 2021년으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팬데믹과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비상사태에 대처함과 동시에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저탄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고무적인 사실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경로로 유도함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9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는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도입했으며, 이후 전 세계 뱅킹 업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99개 은행이 PRB의 서명 기관이 되었다.¹ PRB는 은행이 자체 전략, 운영 및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서명 기관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영향을 다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대비 진척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은행은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PRB의 서명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서명 기관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금융 흐름(financial flow)의 방향을 바꿔 보다 지속가능한 성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산보유기관(asset owner) 및 자산운용사(asset manager)들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PRI 서명 기관은 작년 한 해 20% 증가하여 총 운용자산(AUM) 규모가 미화 103조 달러인 3,000여 개 서명 기관이 PRI에 참여하고 있다.² 여기에는 자산 규모가 24조 달러에 이르는 500여 개 자산보유기관이 포함된다.

기후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작년에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 Action Summit)에서 UNEP-FI는 PRI와 연계된 '넷제로 자산보유기관 연합(NZAOA, 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이 연합은 총 5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33개 기관투자자 서명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NZAOA의 서명 기관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로 했다.³ 장기투자자에 해당하는 이들 자산보유기관은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을 장려하고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활동은 총 운용자산 규모가 47조 달러 이상인 500여 투자자들의 연합체인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의 활동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행동 100+'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거버넌스 개선,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확대 등을 위해 세계 10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전 세계 산업 배출량의 총 3분의 2를 차지하는)을 포함한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⁴



가중되고 있는 규제당국의 압력

각국 정부는 E&S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및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WWF가 2019년 12월에 발간한 「아세안 지역 뱅킹 부문 지속가능금융 규제 - 기준의 강화(Sustainable Banking Regulations in ASEAN - Raising the Bar)」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6개국이 뱅킹 부문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⁵ 이후 아세안 지역에서 진전된 상황 중 일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19년 9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과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는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공동위원회(JC3, Joint 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설치했다. JC3는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및 공시', '금융상품 및 혁신', '참여 및 역량구축' 등 4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JC3의 활동에는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원칙기반 분류 체계(principle-based taxonomy)의 구축 사업이 포함되며, 그러한 분류 체계는 2021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⁶
- 2020년 4월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에는 필리핀 은행의 전략, 운영,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지속가능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⁷
- 2020년 6월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한 환경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에는 은행, 보험업체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유사한 요구사항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⁸

비록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넷제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유럽연합(EU)이 작년에 수립한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⁹ 아울러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권고안에 따라 국내 금융 부문의 기후 관련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¹⁰ 중국의 2060년 배출량 넷제로 선언과 더불어 한·중·일이라는 아시아의 3대 경제국 모두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따를 수 있는 강력한 선례이다.¹¹ 한편 이들 3개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금융기관 포함)은 다가올 규제상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연 관련 리스크

기후변화 외에도 자연 손실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정부, 주주 또는 기업을 막론한 다양한 주체가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환경 리스크 관련 정책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도 포함된다. 월마트(Walmart)와 유니레버(Unilever)를 포함하여 총 매출 규모가 미화 4조 달러 이상인 600개사는 '비즈니스 포 네이처(Business for Nature)'라는 연합체가 진행 중인 대대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에 2030년까지 자연 손실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 또한 식량·토지이용연합(Food and Land Use Coalition)도 세계 각국의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식량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이끌어 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³ 작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173조를 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2020년 6월 네덜란드 중앙은행(Dutch Central Bank)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기관에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결과가 수록된 보고서를 발표했다.¹⁴

금융기관도 자연 관련 리스크를 심각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NFD,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출범했으며 현재 AXA, BNP 파리바은행(BNP Paribas), 싱가포르개발은행(DBS Bank), 라보뱅크(Rabobank), 스토어브랜드(Storebrand) 등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62개 회원 기관이 비공식적인 워킹그룹을 통해 활동 중이다.¹⁵ TNFD의 목표는 금융 흐름의 방향을 바꿔 자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의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총 운용자산 규모가 3조 유로인 26개 금융기관이 금융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자연 손실 추세를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금융서약(Finance for Biodiversity Pledge)'에 가입했다.¹⁶



지속가능성 보고를 지지하는 추세 확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에 맞춘 보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 증가라는 소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TCFD를 지지하는 기업 및 기관의 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약 85% 증가했다. 현재 시가총액 합계가 미화 12조6,000억 달러인 1,340여 개 기업이 TCFD를 지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 15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포함된다.¹⁷ 이는 가까운 미래에 TCFD 권고안에 맞춘 공시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9월에는 '포괄적 기업 보고를 위한 협력의향성명(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이 발표되면서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¹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공시표준화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및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가 발표한 이 성명은 기관별 보고 표준의 상호 조율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IIRC와 SASB는 통일된 기업 보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두 기관을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혔다.¹⁹ 이러한 결정은 기업보고대화(Corporate Reporting Dialogue)가 2019년 9월 발간한 「기후 관련 보고의 상호 조율 추진(Driving Alignment in Climate-related Reporting)」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5개 기관의 보고 표준을 TCFD 권고안과 비교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⁰ 재무 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제정하는 주요 기관은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표준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의 질, 상세함 및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S 리스크의 관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E&S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가 담당하는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SUSBA의 부문별 정책 평가

2020년판 SUSBA에는 고위험 부문에 대해 은행이 채택할 수 있는 서약 및 고객 정책이 추가되었다. 이 점을 보완하면서, 은행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 평가 또는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에서부터 고위험 부문/영역의 고객 또는 생물다양성과 같은 이슈에 대한 감시(scrutiny) 확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SUSBA에 반영하였다. 어떤 부문 또는 영역이 고위험 부문/영역인지는 은행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부문이 고위험 부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부문으로는 광업 및 금속, 에너지, 수산물, 화학제품, 그리고 팜오일, 축산물, 대두 및 고구마 같은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부문별 서약과 정책을 새로이 고려하는 과정에서 팜오일 및 에너지 부문을 SUSBA 프레임워크에 추가했다. 각 부문의 평가 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은행이 해당 부문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한 고객과의 협력 및 고객 지원을 서약하며, 대출과 자문서비스, 자본시장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을 은행 거래관계에 적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평가 지표는 SUSB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팜오일

우리는 날마다 팜오일 또는 팜오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식용유, 가공식품, 퍼스널케어 제품, 화장품, 바이오연료, 동물 사료 등 다양하다. EU, 미국 및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따른 수요는 2017년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5분의 1에 가까운 규모였다. 팜오일은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 소비 및 거래되는 식물유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 식물유 소비의 41% 및 연간 식물유 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²¹ 또한 팜오일 생산량은 2019년 7,600만 톤에서 2050년 2억6,400만~4억 4,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²²

2019년에 생산된 전체 팜오일의 85%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팜오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파푸아뉴기니, 동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을 포함한 미개척 시장에서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³ 팜오일의 무분별한 생산 확대로 인해 열대우림과 그 밖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괴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영향은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팜오일 생산의 증가 추세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²⁴

그러나 팜오일이 범용성이 뛰어나고, 헥타르당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팜오일을 불매하거나 대체하려고 하면 이를 대신할 오일시드의 재배에 따른 경작지 면적 증가로 인해 산림과 기타 육상 생태계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팜오일 생산의 증가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규모 팜오일 생산국들에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 넘는 소규모 자작농 및 영세 농가가 팜오일 생산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소규모 자작농은 전 세계 팜오일 생산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²⁵

따라서 식량안보,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와 같은 장기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팜오일 부문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연의 파괴와 자연 생태계의 토지이용 전환을 막고, 자연경관을 복구하고 상호 연결시키며, 인간과 자연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고객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팜오일 부문의 자체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WWF는 팜오일 부문에 대한 은행의 E&S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평가 지표는 은행의 자체적인 서약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이들 평가 요소는 '지속가능한 팜오일산업 협의체(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 및 WWF의 팜오일 구매자 평가표(POBS, Palm Oil Buyers Scorecards)와 같은 모범규준에도 맞추어 조정되어 있다.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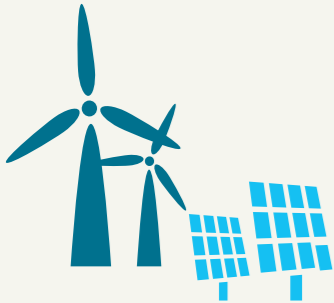
유엔은 앞으로의 10년을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으로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특히 기후행동에 관한 목표인 'SDG 13'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는 그 자체가 커다란 도전 과제이다.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²⁶ 에너지 생산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석유와 석탄의 수요가 감소하고 석유 수요는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더 저렴해지면서(비록 가장 저렴한 형태의 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27,28} 예컨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의 37%에서 28%(국제에너지기구(IEA)의 공표정책 시나리오(STEPS, Stated Policies Scenario) 예측치) 또는 15%(IEA의 지속가능개발 시나리오(SDS,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예측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점차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현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2000년~2019년 전 세계 자연재해는 40억 명 이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화 약 2조9,700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초래했다. 반면 직전 20년간 발생한 총 경제손실은 1조6,300억 달러에 불과했다.³⁰ 이와 같은 손실의 증가는 대부분 이상기후, 홍수 및 폭풍과 같은 기후 관련 재해가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손실 수치는 해수면 상승, 담수 부족, 작물 수확 실패, 생물다양성 손실 등과 같은 기타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하려면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을 닫아야 함을 의미한다.^{31,32} 산업계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전환연료(transition fuel)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구온난화를 1.5°C 한도 미만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활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³³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되는 잠금 효과(lock-in)로 인해 파리협정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투자 역시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갈수록 많은 금융기관이 석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있으며, 비용 및 환경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극 시추와 같은 비전통 석유·천연가스 탐사를 배제하고 있다.³⁴ 다행스럽게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향후 10년 안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 비용보다 태양광발전소의 신규 건설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³⁵

낙관적인 부분은 변화의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에 따라 60여 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1,000여 개 기업이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SBTi는 이들 금융기관이 기온 상승 1.5°C 제한이라는 파리협정 목표에 맞추어 대출 및 투자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³⁶ 아울러 한국, 중국 및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 내 대규모 배출국이 넷제로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SBC 및 바클레이즈(Barclays)와 같은 대형 국제 은행도 2050년까지 넷제로 포트폴리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서약했다. 한편 EU 지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서약에서 알 수 있듯,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녹색 회복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어 기후완화에 기여하려면 공시 강화 및 금융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진전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 은행

이번 SUSBA 4차 평가에서는 38개 아세안 은행 및 새로이 추가된 한국과 일본의 10개 주요 은행의 E&S 통합 성과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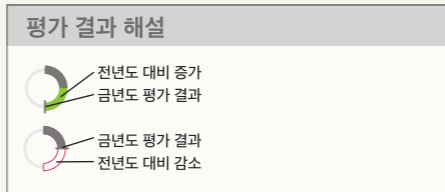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BANK ISLAM(은행 이슬람), 인도네시아 국민은행(Bank Rakyat), 필리핀의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의 아세안 은행 3곳이 추가되었다. 평가에서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영문 공식 자료만 고려했으며, 회계연도 2019년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형식으로 된 자료 및 기업 웹사이트 게시 정보(예: 회사 정책, 성명, 보도자료 등)를 검토했다. 또한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고려하고자 했다. 아래 표에는 SUSBA 평가대상 은행들이 열거되어 있다.



1 일본	2 한국	3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5 필리핀	6 싱가포르	7 태국	8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즈호은행 (Mizuho Bank, "미즈호") ■ 미쓰비시 UFJ은행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Bank, "MUFG") ■ 리소나은행 (Resona Bank, "리소나") ■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 ■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Sumitomo Mitsui Trust Bank, "SM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 ("하나") ■ KB국민은행 ("KB국민") ■ IBK 기업은행 ("IBK기업") ■ 신한은행 ("신한") ■ 우리은행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트럴 아시아 은행(Bank Central Asia Tbk, "BCA") ■ 만다리은행(Bank Mandiri (Persero) Tbk, "만다리") ■ 무아말랏은행 (Bank Muamalat Indonesia Tbk, "무아말랏") ■ 네가라은행(Bank Negara Indonesia Tbk, "BNI") ■ 파닌은행(Bank Panin Tbk, "파닌") ■ 자와바랏·반텐지역 개발은행(Bank Pembangunan Daerah Jawa Barat dan Banten Tbk, "BJB") ■ 페르마타은행 (Bank Permata Tbk, "페르마타") ■ 인도네시아 국민은행(Bank Rakyat Indonesia Tbk, "B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MB 홀딩스 (AMMB Holdings Berhad, "AmBank") ■ BANK ISLAM(은행 이슬람(Bank Islam Malaysia Berhad, "BI") ■ 말레이시아 국민협동은행 (Bank Kerjasama Rakyat Malaysia Berhad, "BR") ■ CIMB 그룹 홀딩스(CIMB Group Holdings Berhad, "CIMB") ■ 흥링은행(Hong Leong Bank Berhad, "흥링") ■ 말레이은행 (Malayan Banking Berhad, "MayBank") ■ 퍼블릭은행 (Public Bank Berhad, "퍼블릭은행") ■ RHB은행(RHB Bank Berhad, "RH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DO 유니뱅크 (BDO Unibank, Inc, "BDO") ■ 필리핀은행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PI") ■ 차이나은행 (China Banking Corporation, "CBC") ■ 메트로은행 (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 "메트로은행") ■ 필리핀 내셔널 뱅크(Philippine National Bank, "PNB") ■ 리잘상업은행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RCBC") ■ 시큐리티 뱅크 (Security Bank Corporation, "S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 Group Holdings Limited, "DBS") ■ 화교은행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 "OCBC") ■ 대화은행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U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콕은행 (Bangkok Bank, "BBL") ■ 아우타야은행 (Bank of Ayudhya, "크롱스리") ■ 카시콘은행 (Kasikorn Bank, "KBank") ■ 크룽타이은행 (Krung Thai Bank, "KTB") ■ 시암상업은행 (Siam Commercial Bank, "SCB") ■ 타나차트은행 (Tanachart Bank, "TBank") ■ TMB은행 (TMB Bank, "T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투자 개발은행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BIDV") ■ 베트남 대외 무역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CB") ■ 베트남 산업 통상은행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VietinBank") ■ 베트남 수출입은행 (Vietnam Export-Impor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EximBank") ■ 베트남 번영은행 (Vietnam Prosperity Bank, "VPBank")

결과 요약

각국의 지표별 평균



E&S 통합 부문 및 지표	일본	한국	아세안						평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책임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파워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괄성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주요 결과



1.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비상사태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은행이 인식하고 있었다. 38개 아세안 은행 중 32개 은행, 3개 한국 은행 및 5개 일본 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에 발생하는 커다란 도전 과제를 인지하고 있었다(전년도 결과: 19개 아세안 은행). 그러나 은행의 금융 활동 자체에서 비롯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은행은 전체 8개국 중 아세안 3개 은행에 불과했다. 은행의 사회적 공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SDGs를 활용하는 은행이 많아졌다. 38개 아세안 은행, 4개 한국 은행 및 5개 일본 은행이 자체 전략 또는 비전에 SDGs를 반영시켰다(전년도 결과: 28개 아세안 은행).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책임금융 및/또는 기후변화를 중대한 이슈로 여기고 있었으나, 아세안의 경우에는 28개 은행만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전년도 결과(25개 아세안 은행)에 비해 소소하게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이 기후변화 문제에 아직까지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은행이 기후 관련 리스크 대비 전략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후 전략을 보유한 은행의 수는 전년도의 2개에서 9개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5개 한국 은행 중 3개 은행과 5개 모두의 일본 은행이 기후 전략을 보유하고 있었다. SUSBA에서 기후 전략의 질적인 부분은 평가되지 않는다. 다만, 이같이 개선된 수치는 은행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간 아세안 은행은 2곳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의 은행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각각 2개 은행과 4개 은행이 시나리오 분석을 이행하고 있었다.



3. 환경 파괴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준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자연 관련 비상사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은행은 전체의 3분의 1이 약간 넘는 수준(14개 아세안 은행, 1개 한국 은행 및 3개 일본 은행)이었다. E&S 리스크 노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의 평가를 실시하는 은행은 5개 아세안 은행뿐이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무했다. E&S 리스크에는 산림 벌채, 담수 부족, 인권 및 노동권 관련 리스크가 포함되며, 기후 관련 리스크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모든 E&S 이슈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관련하여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관과 협력하는 아세안 은행이 증가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 20개 아세안 은행이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 결과(11개 은행)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2개 은행만이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하여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전무했다. 아울러 전체 은행 중 절반 정도만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개 아세안 은행, 1개 한국 은행 및 3개 일본 은행이 E&S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로써 수행 중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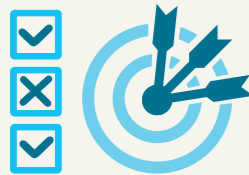
5. E&S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이슈별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수는 근소하게 증가했다. 금년도 평가에 추가된 은행을 제외하면, 총 19개 은행이 산림 벌채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포트폴리오상의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개 은행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들 은행 가운데 3개 아세안 은행만 고위험 고객에 금융지원 조건으로 '산림 벌채 금지(No Deforestation)' 서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 아세안 은행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1개 은행도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아세안, 한국 및 일본 은행 가운데 고객에 담수 스튜어드십(water stewardship)을 서약하게 하거나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고객의 사업체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은행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의 '부문 및 이슈 (Sectors & Issues)' 분석 페이지에서는 은행의 팜오일 및 에너지 부문 정책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6.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 승인 및 모니터링 절차에 E&S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평가 대상 은행은 3개 싱가포르 은행을 제외하고 '절차(Process)' 부문에서 전체 기준의 평균 3분의 1 이하를 충족하고 있었다. 24개 아세안 은행, 2개 한국 은행 및 2개 일본 은행은 E&S 실사(due diligence)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 은행의 E&S 정책에 대한 고객의 준수 여부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고객의 E&S 리스크 프로파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은행은 11개에 불과했으며, 6개 은행만이 은행 정책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 불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은행이 E&S 정책을 확실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7. 전체 3분의 2 이상의 은행에서 고위 경영진에 ESG 통합에 대한 감독 임무를 부여했으나, 이들 은행 중 절반 정도는 조직의 하부 구성원 대상으로는 그 책무를 확대하지 않은 상태이다. 조직의 최상부에서 바람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만큼 구성원들도 관련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의 은행(13개 아세안 은행, 1개 한국 은행, 4개 일본 은행)이 전담 ESG팀을 보유하고 있었다. ESG팀은 복잡한 사례를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 지식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책임 있는 बैं킹 문화가 전사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한편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밑도는 수의 은행(12개 아세안 은행 및 2개 일본 은행)은 은행의 3중 방어 체계(three lines of defense)에 E&S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이 주류 금융 리스크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감시(scrutiny)를 E&S 리스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전체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의 은행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량화된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중 1개 은행이 과학기반목표(SBT) 설정을 서약했다. 11개 아세안 은행, 2개 한국 은행 및 4개 일본 은행은 포트폴리오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절대적 규모 또는 상대적 비율을 늘리기로 서약했다.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은행의 금융 활동과 연관된 부정적 E&S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USBA 평가 대상인 아시아 은행 가운데 SBT에 가입함으로써 SBT 목표 수립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한 은행은 한국의 1개 은행에 불과하다.

부문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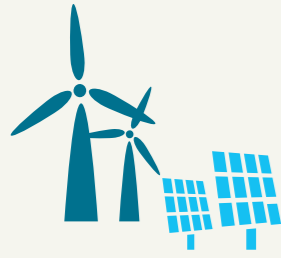


팜오일

팜오일 부문의 경우, 관련 서약과 정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다. 팜오일에 대해 언급한 16개 은행 중 12개 은행이 이들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팜오일 관련 정책은 업스트림 생산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며 공급업체, 제3자 및 다운스트림 제조업체는 다루지 않는 편이다. 아래의 [그림 1]에는 아세안 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업스트림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12개 아세안 은행이 팜오일을 핵심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객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을 공개한 은행은 4곳에 불과했다.

팜오일 부문: 지표를 충족하는 지역별 은행 비율(%)

지표	아세안	한국/일본
은행이 산림 벌채 및/또는 자연 생태계의 농지 전환을 리스크(환경 또는 비즈니스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가?		
은행이 팜오일 부문을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접근법(팜오일 또는 농업 관련)을 보유하고 있는가?		
은행이 팜오일 부문의 전체 정책 문서를 공개하는가?		
은행이 고객의 농장에 대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 벌채, 이탄습지 파괴 및 주민 착취 금지) 정책을 요구하는가?		
은행이 고객에 일정 기한까지 고객의 사업체가 100% RSPO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가?		
은행이 모든 신규 및 기존 농장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공동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및 법적·관습적 사용자 권리가 존중되도록 요구하는가?		



에너지

에너지 부문 정책의 평가를 위한 SUSBA 프레임워크는 은행이 기후변화로 인한 제약 요소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 변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한 활동에는 일차적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시급히 벗어나는 것과 주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38개 아세안 은행 중 30개 은행이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인식을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한 은행은 9곳에 불과했다. [그림 2]는 아세안 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진 서약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에서는 석탄 발전 및 채광을 배제하는 정책이 일종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반면, 아세안 지역에서 그러한 정책을 보유한 은행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은행은 아시아 지역 내 공공 사업체에 기업금융 차원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여전히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 지표를 충족하는 지역별 은행 비율(%)

지표	아세안	한국/일본
은행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은행이 에너지 부문을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또는 기후 관련 정책/접근법을 보유하고 있는가?		
은행이 에너지 부문에 관한 정책을 공개하는가?		
은행이 발전용 석탄 광석의 신규 채광 또는 가공을 위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가?		
은행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가?		
은행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한 구체적 목표(수량 또는 포트폴리오 내 비율)를 가지고 있는가?		



권고안

은행에 대한 권고 사항:

-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자연자본 리스크 전략을 수립 및/또는 강화한다.
 - 물질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다.
 - 포트폴리오가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어느 정도로 조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다.
 - 포트폴리오 차원의 평가가 자연자본 리스크를 다룰 수 있도록 평가 범위를 확대한다.
 - 고위험 고객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이사회 유관 위원회(리스크, 감사, 임명, 임원보수 위원회 등)의 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에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사회에 ESG 전략 이행의 공식적인 감독 임무를 부여한다.
 -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지속가능성 관련 고려사항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보장한다.
 - 기후변화 및 기타 ESG 이슈에 관한 집단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한다.
-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이슈에 관한 의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산림 벌채, 수자원, 인권, 노동권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존재하는 주제별 이슈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참고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수립한다.
 - 관련 정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에 기업금융 차원의 거래에도 적용되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 프로젝트 및 기업 차원에서 적용되는 **확실한 부문별 정책을 개발하고**, 고객에 지속가능성 분야의 다중 이해당사자 표준(multi-stakeholder standard) 및 인증 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적절한 경우, 최신 기후과학에 맞춘 화석연료 정책(전환 일정 포함)을 개발한다.
 - 자산 수준 데이터(asset-level data) 및 지리공간 툴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파괴와 연관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은행의 금융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한다.
 - 주요 E&S 이슈 및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통찰적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반목표 네트워크(Science-Based Targets Network) 및 기타 과학기반 기관과 협력한다.
 -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따른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강화한다.
 -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관한 TCFD 권고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시한다.
 - 미래예측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채택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금융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문에 걸쳐 부정적·공정적 영향 모두를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영향 측정 및 보고에 착수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레임워크 또는 보고 표준을 참고하여 보고에 사용할 지표를 선택한다.



은행 규제당국 및 은행협회에 대한 권고 사항:

-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기존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 포트폴리오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타 E&S 리스크의 발생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다.
 - 파리협정 및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y)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기간별 계획이 담긴 과학기반 기준 및 목표를 채택한다.
 - 이사회 유관 위원회(리스크, 감사, 임명, 임원보수 위원회 등)의 위임사항(TOR) 등을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타 E&S 리스크의 관리에 있어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이 맡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공식화한다.
- 은행의 ESG 공시와 관련된 의무적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 요구사항을 TCFD 권고안에 맞추어 조정한다.
 - 공시 요구사항에서 산림 벌채 및 물 부족과 같은 자연자본 리스크를 다루도록 한다.
-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
- 기후 및 환경 관련 리스크에 대한 금융 부문의 노출 정도 및 회복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시행을 고려한다.
- 일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금융 흐름의 방향을 바꿔 보다 회복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작업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지속가능성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자본 요구사항 및 금융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 녹색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활동과 표준의 분류 체계를 개발한다.
 - 규제 프레임워크와 표준의 국가 간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은행 주주에 대한 권고 사항:

- 은행에 대한 상기 권고 사항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포트폴리오 은행과의 양자 협력 및/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한다.
 - 은행에 더욱 확실한 E&S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 ESG 이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 투자자의 ESG 서약 및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 이니셔티브에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은행에 기후 리스크 및 기타 ESG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의 노출 정도에 대한 평가(미래예측 시나리오 분석 포함)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 은행에 TCFD 권고안 및 확립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예: SASB, GRI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요청한다.
 - 은행이 과학기반 탈탄소화 서약을 하고 SDGs 및 파리협정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도록 장려한다. PRB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기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E&S 리스크 및 영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규범적이고 확실한 규정을 수립 및 업데이트하기 위해 규제당국, 증권거래소 및 은행협회와 협력한다.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ASFI)가 뱅킹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금융기관이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최신 연구, 툴, 규정, 가이드라인, 보고 표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스텝을 제공한다.
- 교육훈련 워크숍, 온라인 학습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이 ESG 이슈에 대한 3중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과 규정, 리스크 관리 툴 및 지속가능성 표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포트폴리오 차원의 평가/시나리오 분석 시 은행에 과학기반 표준과 툴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은행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파리협정의 목표 및 그 밖의 지구위험한계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반 기준과, E&S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춘 녹색/청색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여 가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은행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된다.
-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 다른 금융기관의 성과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ESG 통합 및 리스크 관리 성과를 측정 및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며, SUSBA 온라인 플랫폼(susba.org) 및 자산운용사를 위한 ESG 통합 평가 프레임워크인 RESPOND(resilientportfolios.org)와 같은 툴을 통해 ESG 통합 모범사례를 조명한다. 이러한 작업은 은행, 투자자, 규제당국 및 은행협회가 금융기관의 성과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유용하다.
- 은행이 ESG 이슈와 관련하여 갈수록 높아지는 국제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과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S 통합 공시 결과: 일본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MUFG	미즈호	리소나	SMBC	SMTB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 조해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스트홀더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한국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하나	IBK기업	KB국민	신한	우리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 조해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스트홀더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인도네시아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BCA	만디리	BNI	무아말랏	파닌	BJB	페르마타	BRI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거래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지티브 기여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말레이시아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AmBank	BI	BR	CIMB	홍링	MayBank	퍼블릭뱅크	RHB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거래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지티브 기여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필리핀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BOD	BPI	CBC	메트로은행	PNB	RCBC	SBC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채널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지티브 임팩트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싱가포르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DBS	OCBC	UOB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채널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지티브 임팩트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태국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BBL	크몽스리	KBank	KTB	SCB	TBank	TMB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 조차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스트폴리오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E&S 통합 공시 결과: 베트남


평가 결과 해설

- 전년도 대비 증가 금년도 평가 결과
- 금년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

E&S 통합 부문 및 지표		BIDV	VCB	VietinBank	EximBank	VPBank	평균
목적	1.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2.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정책	3.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4.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절차	5.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6.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인적 자원	7. ESG 관련 책무						
	8.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금융 조차	9.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포스트폴리오	10.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11.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범례: 충족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불충족

SUSBA 프레임워크 세부지표

	1) 목적 - 지속가능성 전략 및 이해당사자 참여
1.1.1	은행의 전략과 장기 비전에 지속가능성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가?
1.1.2	은행의 ESG 발자국에 은행의 비즈니스 활동(예: 파이낸싱, 증권 인수, 자문서비스 등) 및 포트폴리오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은행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1.3	은행의 비즈니스 전략에 ESG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이 리더십 선언(leadership statement)에 언급되어 있는가?
1.1.4	은행의 전략 또는 비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가?
1.1.5	은행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1.6	은행이 환경파괴와 연관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1.7	은행이 ESG 이슈와 관련하여 협력 중인 이해당사자의 유형을 공개하는가?
1.1.8	은행이 자체 비즈니스 활동이 미치는 ESG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사회 및/또는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고 있는가?
1.1.9	은행이 이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빈도 및 방식을 공개하는가?
1.1.10	은행이 책임 금융/대출 및/또는 기타 주요 E&S 이슈를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는가?
	2) 목적 -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참여
1.2.1	은행이 RSPO, PRB, EP, SBTi, SBEPF* 등과 같이 서약에 기반한 유관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가?
1.2.2	은행이 ESG 통합 및/또는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관련하여 규제당국 및 정책입안자와 협력하고 있는가?
	3) 정책 - 특정 ESG 이슈에 관한 공개 성명
2.1.1	은행이 ESG 요소를 고려하여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보유하고 있는가?

2.1.2	은행이 기후 관련 리스크에 고도로 노출된 고객에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활동을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요구하는가?
2.1.3	은행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가?
2.1.4	은행이 고객의 활동에 내재하는 생물다양성 손실 리스크 및/또는 산림 벌채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가?
2.1.5	은행이 산림 벌채에 고도로 노출된 부문(예: 소프트 원자재, 사회기반시설, 채굴산업 등)의 고객에 '산림 벌채 금지(No Deforestation)' 서약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가?
2.1.6	은행이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객의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가?
2.1.7	은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가?
2.1.8	은행이 담수 리스크(홍수, 담수 부족, 수질오염 등)를 고객의 활동에 내재하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가?
2.1.9	은행이 고위험 부문/영역의 고객에 담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담수 스튜어드십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가?
2.1.10	은행이 고객의 활동에 내재하는 인권 리스크(지역사회 관련 리스크 포함)를 인식하고 있는가?
2.1.11	은행이 고객에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가?
2.1.12	은행이 노동권 침해를 모든 부문에 걸쳐 존재하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가?
2.1.13	은행이 고객에 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에 상당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가?
2.1.14	은행의 E&S 요구사항이 대출 이외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자본시장 활동, 자문서비스 등)에도 적용 가능한가?
	4) 정책 - 특정 부문에 관한 공개 성명
2.2.1	은행이 환경·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예: 농산물, 에너지, 석유·천연가스, 광업, 수산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문별 정책 또는 요구사항을 보유하고 있는가?
2.2.2	은행이 환경·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문에 관한 요구사항/정책을 공개하는가?
2.2.3	국제적으로 공인된 E&S 모범기준(IFC Performance Standards, RSPO, FSC 등)에 기반을 둔 최소 요구사항 또는 권고안이 은행의 E&S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2.2.4	은행이 E&S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또는 마지막 검토일이 최근 2년 이내라고 명시하는가?

	5) 절차 - 고객/거래 승인 절차상의 ESG 리스크 평가
3.1.1	은행이 자체 정책에 따른 고객/거래 심사 시 표준화된 E&S 실사 프레임워크(예: 톨, 체크리스트, 질문지, 외부 데이터 제공자 등)를 사용하는가?
3.1.2	은행이 E&S 실사 절차의 일환으로 고객의 역량, 서약 및 실적(track record)을 평가하는가?
3.1.3	은행이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E&S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고객 및 거래를 분류하는가?
3.1.4	매우 복잡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한 상부 보고(escalation)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3.1.5	E&S 리스크 평가 결과가 거래와 고객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6) 절차 - 고객 모니터링 및 참여
3.2.1	은행이 단독 및 신디케이트 신용공여를 위한 대출 서류에 E&S 이슈와 관련된 조항(예: 약정, 진술 및 보증)을 포함시키려 하는가?
3.2.2	은행이 자체 E&S 정책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해당 정책을 일정 기간까지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요구하는가?
3.2.3	합의된 E&S 행동계획에 대한 고객의 준수 여부를 은행이 모니터링하는가?
3.2.4	은행이 고객의 E&S 프로파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또는 그러한 검토를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지 명시하는가?
3.2.5	은행이 자체 정책 또는 사전 합의된 E&S 행동계획에 대한 기존 고객의 불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공개하는가?
3.2.6	은행이 내부 E&S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또는 마지막 검토일이 최근 2년 이내라고 명시하는가?
	7) 임직원 - ESG 관련 책무
4.1.1	고위 경영진이 은행의 ESG 전략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가?
4.1.2	고위 경영진의 책무에 은행의 활동과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요소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4.1.3	은행이 E&S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서, 위원회 또는 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기술하는가?
4.1.4	은행이 E&S 이슈의 관리를 위한 3중 방어 체계가 포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4.1.5	임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위임사항(TOR)에 이사회 신규 구성원의 임명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가?
4.1.6	임원보수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의 TOR에 고위 경영진의 성과 및 보수 수준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가?
4.1.7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의 TOR에서 지속가능성 요소가 내부 통제 및 감사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가?
4.1.8	은행이 E&S 정책 및 절차의 실행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8) 임직원 - 직원 E&S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2.1	은행이 E&S 정책 및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ESG팀을 보유하고 있는가?
4.2.2	은행이 E&S 정책 및 이행 절차에 관한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가?
4.2.3	은행이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가?
4.2.4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이 직원 평가 절차 및/또는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되어 있는가?
	9) 금융상품 - ESG 요소가 반영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5.1.1	은행이 환경·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문의 고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고객이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5.1.2	은행이 E&S 이슈(예: 기후변화, 담수 부족, 수질오염, 산림 벌채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금융상품과 서비스(예: 녹색채권, 지속가능성 연계 여신, 임팩트 금융)를 제공하는가?
5.1.3	은행이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 특정 자본을 할당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가?
5.1.4	은행이 모범적 E&S 관행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고객 아웃리치(outreach) 행사(예: 공동 워크숍)를 개최하는가?
	10)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차원의 ESG 리스크 평가 및 완화조치
6.1.1	은행이 E&S 리스크(예: 산림 벌채, 담수 부족,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은행 포트폴리오의 노출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6.1.2	은행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물리적 리스크 및/또는 전환 리스크에 대한 은행 포트폴리오의 노출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와 사용된 방법론을 공개하는가?
6.1.3	은행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11) 포트폴리오 - ESG 리스크 노출 정도 및 목표의 공개
6.2.1	은행이 산업 부문별 신용리스크 노출 정도를 공개하는가?
6.2.2	은행이 전력 생산 부문(예: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과 업스트림 에너지 탐사 및 생산 부문(예: 전통 대비 비전통 석유·천연가스 및 석탄)의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을 공개하는가?
6.2.3	은행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요 탄소집약적 부문(예: 농업, 광업·금속, 에너지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탄소집약도를 공개하는가?
6.2.4	은행이 자체 E&S 정책의 이행에 관한 통계자료(예: 평가, 상부 보고, 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된 거래 건수)를 공개하는가?
6.2.5	소프트 원자재 고객 중 자신의 사업체가 지속가능성 분야의 신뢰성 있는 다중 이해당사자 표준(multi-stakeholder standard)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100% 인증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고객의 비율을 은행이 공개하는가?
6.2.6	은행이 민감한 부문에 관한 자체 E&S 정책에 해당되는 고객의 비율 또는 전체 신용리스크 노출 정도를 공개하는가?
6.2.7	은행이 자체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 외에 비즈니스 활동과 연관된 부정적 E&S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6.2.8	은행이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했거나 그렇게 하기로 서약했는가?
6.2.9	은행이 ESG 관련 공시에 대한 외부보증(external assurance)을 실시하는가?
6.2.10	은행이 자체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 외에 비즈니스 활동과 연관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는가?

*RSPO: 지속가능한 팜오일산업 협의체(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PRB: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EP: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 SBTi: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EFP: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위한 금융원칙(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Principles)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2020). [online] <https://www.unepfi.org/banking/bankingprinciples/>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20). [online] <https://www.unpri.org/about-the-pri>
- UNEP FI (2020). [online] <https://www.unepfi.org/net-zero-alliance/>
- Climate Action 100+ (2020). [online] <http://www.climateaction100.org/about-us>
- WWF (2019). Sustainable Banking Regulations in ASEAN - Raising the Bar. [online] https://d2ouvy59p0dg6k.cloudfront.net/downloads/wwf_sustainable_banking_regulations_in_asean_raising_the_bar_dec_2019_.pdf
- Bank Negara Malaysia (2020). Joint Statement by Bank Negara Malaysia and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 Accelerating climate action through the financial sector. [online] https://www.bnm.gov.my/index.php?ch=en_press&pg=en_press&ac=5113
- Sustainable Banking Network (2020). BSP issues guidelines on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online] <https://www.sustainablebankingnetwork.org/article/175.html>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0). MAS Consults on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Guidelin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online]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mas-consults-on-environmental-risk-management-guidelines-for-financial-institutions>
- The Independent (2020). Japan 'to pledge net zero emissions by 2050' in major policy shift. [online]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japan-net-zero-2050-emissions-climate-crisis-prime-minister-yoshihide-suga-b1251563.html>
- Korea Times (2020). FSS chief stresses need to monitor climate-related risks [online] 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20/10/367_296480.html
- Nikkei Asia (2020). South Korea joins Japan in making 2050 carbon-neutral pledge. [online] <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South-Korea-joins-Japan-in-making-2050-carbon-neutral-pledge>
- Business for Nature (2020). Business for Nature's Call to Action. [online] <https://www.businessfornature.org/call-to-action>
- Food and Land Use Coalition (2020). A Call to Action for World Leaders. [online] <https://www.foodandlandusecoalition.org/a-call-to-action-for-world-leaders/>
- De Nederlandsche Bank (2020). DNBulletin: Indebted to nature. [online] <https://www.dnb.nl/en/news/news-and-archive/dnbulletin-2020/dnb389169.jsp>
-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0). [online] <https://tnfd.info/how-it-will-work/>
- Finance for Biodiversity Pledge (2020). [online] <https://www.financeforbiodiversity.org/>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0). TCFD Status Report. [online]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0/09/2020-TCFD_Status-Report.pdf
- CDP, CDSB, GRI, IIRC, SASB (2020).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online] <https://www.globalreporting.org/media/bixjk1ud/statement-of-intent-to-work-together-towards-comprehensive-corporate-reporting.pdf>
- IIRC, SASB (2020). IIRC and SASB announce intent to merge in major step towards simplifying the corporate reporting system. [online] <https://www.sasb.org/wp-content/uploads/2020/11/IIRC-SASB-Press-Release-Web-Final.pdf>
- Corporate Reporting Dialogue (2019). Driving Alignment in Climate-related Reporting. [online] https://corporatereportingdialogue.com/climate-report-2019/pdf/CRD_BAP_Report_2019.pdf
- USDA (2019). FAS Home, Market and Trade Data, [online] <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compositeViz>
- Afriyanti, D., Kroeze, C. and Saad, A. (2016). 'Indonesia palm oil production without deforestation and peat conversion by 2050',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557: 562-570.
- USDA-FAS (2020).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Oil, Palm World as of Dec 2019 [online] <https://apps.fas.usda.gov/>
- Pacheco, P. (2012). Soybean and oil palm expansion in South America: A review of main trends and implications, Working Paper 90, Bogor, Indonesia: CIFOR [online] http://www.cifor.org/publications/pdf_files/Wpapers/WP90Pacheco.pdf
- RSPO (2020). [online] <https://rspo.org/smallholders>
- J. Rockström et al., A roadmap for rapid decarbonization. Science 355.6331, 1269-1271 (2017).
- SP Global (2020). [online]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electric-power/062320-oil-fossil-fuel-demand-may-have-peaked-in-2019-thanks-to-covid-19-report>
- IRENA (2020) Power Generation Costs 2019. [online] 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20/Jun/IRENA_Power_Generation_Costs_2019.pdf
- IEA (2020) World energy outlook 2020. [online]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80d64d90-dc17-4a52-b41f-b14c9be1b995/WEO2020_ES.PDF
- UNDRR (2020). [online] <https://www.undrr.org/publication/human-cost-disasters-overview-last-20-years-2000-2019>
- Climate Analytics (2020). Coal phase-out. [online] <https://climateanalytics.org/briefings/coal-phase-out/>
- Carbon Brief (2020). Analysis: Why coal use must plummet this decade to keep global warming below 1.5C. [online]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why-coal-use-must-plummet-this-decade-to-keep-global-warming-below-1-5c>
- 참조: <https://carbontracker.org/reports/balancing-the-budget/>
- 참조: <https://ieefa.org/exiting-oil-gas/>
- Carbon Tracker (2018). Cheaper to build new renewables than run existing coal plants within 10 years' time in South-east Asia [online] <https://carbontracker.org/cheaper-to-build-new-renewables-than-run-existing-coal-plants-within-10-years-time-in-south-east-asia/>
- SBTi (2020). Companies taking action. [online] <https://sciencebasedtargets.org/companies-taking-action/>

약어 설명

A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SFI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Asia Sustainable Finance Initiative)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UM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	환경·사회적(Environmental and Social)
GHG	온실가스(Greenhouse Gas)
GRI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IIRC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PBES	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NGFS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OJK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f Indonesia)
PRA	간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B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I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RSPO	지속가능한 팜오일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BEFP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위한 금융원칙(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Principles)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EP-F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SBTi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SUSBA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N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JAMES MORGAN / WWF INTERNATIONAL



© NATIONAL GEOGRAPHIC STOCK / SARAH LEEN / WWF INTERNATIONAL



© MARTIN JANOUŠKA / WWF INTERNATIONAL

WWF 지속가능금융

100%
RECYCLED



Working to sustain the natural world
for people and wildlife

together possible panda.org/finance